

## 기타 종합 업어치기로 세계를 메친 사나이

### 3 연속 세계유도선수권자, 전기영

용인=이상철 기자 / 2008-10-03

#### 전기영

생년월일 | 1973년 7월 11일

신체조건 | 179cm, 94kg

학력 | 청주 교동초-대성중-청석고-경기대

경력 | 한국마사회-일본 다이고로

주요 성적 | 1993년 파리오른 78kg 급 1위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 78kg 급 1위

1994년 오스트리아오픈 86kg 급 1위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 86kg 급 1위

1995년 아시아선수권대회 86kg 급 1위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86kg 급 1위

1997년 오스트리아오픈 86kg 급 1위

1997년 세계선수권대회 86kg 급 1위



한국 남자유도에는 뛰어난 선수가 많았다.

안병근(46)과 하형주(46)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대회에서 한국유도의 첫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이원희(27, 한국마사회)는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며

한국유도 사상 첫 그랜드슬램을 이뤘다.

1990년대 최고의 선수는 전기영(35)이었다. 전기영은 한국유도를 넘어 세계유도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는 ‘무적의 사나이’였다.

전기영은 강했다. 상대 선수들은 빠르게 파고들어 순식간에 넘겨 버리는 전기영의 업어치기에 알면서도 당했다.

‘업어치기의 달인’ 전기영은 업어치기 기술 하나로 오랜 기간 세계 정상을 지켰다.

전기영은 1993년과 1995년, 1997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3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유도 사상 처음이고 체급을 올려 가며 이룬 대기록이다.

#### 유도 천재의 등장

12살 전기영은 평범한 초등학생이었다. 유도복을 잘 개어 띠로 말아 들고 다니는 형들이 멋져 보였지만 유도를 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러다 뜻하지 않게 유도를 시작하게 됐다. 어느 날 친구와 심하게 다뤘는데 그 친구가 불리해지자 1살 위의 형을 불렀다. 1살 차이였지만 어린 나이에 싸움을 하는 데는 큰 차이였다. 전기영은 많이 맞았다. 분통이 터졌다.

나중에 알아 보니 형제 모두 유도 선수였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전기영은 1년 뒤 유도부에 들어갔다. 그리고 7년 뒤 세계 유도계를 놀라게 했다.

### 1992년 경기대 1학년 때 국가대표로 뽑혔다.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듬해 캐나다 해밀턴에서 열리는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대표선수 1차 선발전이 벌어졌다.

당시 78kg 급에는 쟁쟁한 선수들이 있었다. 바르셀로나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김병주(40) 선배와 윤동식(36)이 국내 랭킹 1, 2위를 다했다. 그런데 내가 이들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 국가대표로 뽑힌 뒤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1993년 2월 파리오른에서 1위에 오른 데 이어 7개월 뒤에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유도 사상 최연소 우승을 이뤘다.

1993년 세계선수권대회 78kg 급 결승에서 요시다 히데히코(39,일본)와 맞붙었다.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강자였지만 업어치기 절반으로 이겼다. 20살 때였다.

박종학 선배(50)가 1981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유도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1위에 오른 이후 최연소 세계선수권자였다. 어린 나이에 첫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자신감을 갖게 됐다.

### ‘유도 천재’로 불렸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스스로 ‘타고난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배우는 속도가 또래보다 빨랐다.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도 실력이 늘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면 기술이 내 몸에 뻐다. 당장 경기에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 힘이 상당히 좋았는데.

좋은 몸을 물려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한다. 집안 대대로 힘이 센 편이다. 할아버지는 씨름 선수였다. 아버지도 중학교 때 씨름 선수, 고등학교 때 유도 선수를 하셨다.

그러나 내가 이룬 성과가 타고난 신체 조건과 천재성 덕으로만 여겨지는 게 기분 나쁘기도

했다. 난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

### 업어치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려면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다.

업어치기는 힘이 부족하고 체구가 작은 선수도 자기보다 큰 상대를 한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업어치기를 잘하기 위해 수없이 연구하고 분석했다.

또 힘과 기술을 키우기 위해 훈련할 때마다 두 선수를 동시에 상대했다. 한 선수가 서 있으면 다른 선수가 그 선수의 허리를 잡은 상태에서 내 업어치기를 버티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훈련을 해 어느 위치에서든 업어치기를 할 수 있게 됐다.

### 일본의 콧대를 꺾다

일본은 유도 종주국이다. 1987년 에센대회 이후 11차례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종합 1위는 늘 일본의 차지였다. 일본유도의 자긍심은 대단했다.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는 일본 지바에서 열렸다. 1956년과 1958년 제 1, 2회 대회도 도쿄에서 열린 뒤 37년 만에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였다. 일본 유도계는 이 대회를 통해 일본유도의 힘을 보여 주고자 했다.

전기영은 1994년 86kg 급으로 한 체급을 올렸다. 체중 조절이 힘들었던 데다 부상과 슬럼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체급을 올리는 과정에서 1994년 히로시마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78kg 급을 주름잡던 전기영은 86kg 급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경기마다 상대를 매트에 쓰러뜨리며 결승에 올랐다.

###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요시다와 또 만났다.

현역 시절 요시다와 두 차례 싸웠는데 요시다는 쉬운 상대가 아니었다. 당시 일본유도의 간판 선수였다.

경기가 열린 장소가 일본이라 부담감도 컸다. 웬만한 기술엔 심판이 점수를 주지 않을 것 같았다. 이기려면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기술을 걸어야 했다.

### 요시다의 장기인 발다리걸기로 한판승을 거뒀는데.

경기 초반엔 팽팽했다. 계속 기회를 노렸는데 요시다가 업어치기 공격에 흔들리는 게 보였다. 그 순간 발다리걸기로 한판승을 거뒀다.

경기가 끝난 뒤 언론에서 ‘2회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 아닌 ‘세계선수권대회 2체급 석권’이라고 보도했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 좋은 기사 제목이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체급을 바꿔가며 2회 연속 우승한 건 내가 처음이었다.

###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다.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은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 체급을 올린 뒤 요시다와 겨뤄 또 승리했다. 그것도 일본에서 벌어진 대회였다.

내가 발다리걸기로 이겼을 때 체육관을 꽉 채운 관중들이 순간 웅성거렸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러나 곧바로 축하의 박수를 쳤다.

당시 심판이 오스트리아인이었다. 현재 오스트리아유도연맹 경기위원장인데 얼마 전 한국 유도대표팀이 오스트리아 전지훈련을 갔을 때 다시 만났다. 그 심판이 내게 “나중에 자세히 봤는데 한판이 아니라 절반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결승인 데다 타이밍이 워낙 좋아 한판으로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며 “정말 고맙다”고 했다.

### 한판승으로 일궈낸 올림픽 금메달

1996년 애틀랜타 대회는 전기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전한 올림픽이었다. 그리고 절정의 기량을 펼치던 시기였다. 전기영은 세계선수권대회 2연속 우승을 이루며 애틀랜타올림픽 금메달 1순위로 평가됐다.

올림픽 개막일이 다가올수록 전기영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졌다. 금메달에 대한 압박감에 전기영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전기영은 1996년 7월 23일(이하 한국시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첫 경기에서 마크 후이징가(35, 네덜란드)를 3-0 판정승으로 꺾었을 뿐 이후 결승까지 4경기를 모두 업어치기 한판으로 장식했다.

### 애틀랜타올림픽 개막식 한국선수단 기수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를 거절했다.

기수로 뽑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다. 올림픽 개막식 기수로 나서는 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올림픽 개막식이 1996년 7월 21일 열렸다.

유도 남자 86kg급 경기는 개막식 이틀 뒤에 벌어질 예정이었다. 경기를 이틀 앞두고 개막식에 참가하는 게 부담스러웠다. 김창호 감독님과 안병근 코치님이 “기수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셨다. 눈물을 머금고 이를 받아 들였다.

### 첫 상대가 후이징가였다. 대진 운이 없었다.

올림픽 개막 전부터 나나 코칭스태프가 입버릇처럼 “제발 후이징가만 만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김감독님이 대신 추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어두우셨다.

직감적으로 느낌이 안 좋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하늘이 내게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가는 것 같았다.

### 후이징가를 왜 그렇게 힘들게 했다.

1996년 초반 해도 올림픽 금메달을 자신했다. 그런데 그해 2월 유럽 전지훈련에서 문제가 생겼다. 유도대표팀은 컨디션 점검과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파리오펜과 오스트리아오픈, 독일오픈 등 세 차례 국제유도대회에 참가했다.

난 오스트리아오픈과 독일오픈에 출전했다. 오스트리아오픈에서 후이징가와 처음으로 상대했는데 효과, 유효, 절반, 한판 등을 모두 따 내며 손쉽게 승리했다.

1주일 뒤 독일오픈에서 또다시 후이징가와 맞붙었다. 오스트리아오픈을 떠올리며 후이징가를 우습게 봤다가 지도로 무릎을 꿇었다. 내 업어치기를 버텨 낸 선수는 후이징가가 처음이었다. 기술이 제대로 걸리지 않으니까 후이징가가 두려워졌다.



### 그러나 판정으로 후이징가를 눌렀다.

이기긴 했지만 정말 힘든 경기였다. 후이징가를 꺾고 큰 고비를 넘기니 더 이상 날 막을 선수가 없을 것 같았다. 요시다를 비롯해 강자들도 일찌감치 탈락했다. 준결승까지 내리 한판으로 이겼다.

결승 상대는 아르멘 바그다사로프(36, 우즈베키스탄)였다. 한번도 겨뤄본 적 없는 상대라 긴장됐다. 잡기 싸움을 하는데 힘이 세고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느꼈다.

그러나 업어치기를 시도해 보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경기 종료 57초를 남기고 업어치기로 상대를 매트에 눕혔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했지만 올림픽 금메달의 느낌은 또 달랐다. 최고였다.

### 시상식에서 태극기를 망토로 해 화제를 모았다.

육상과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국기를 들고 트랙과 매트를 뛰어 다닌다. 나도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매트를 돌려고 했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다.

경기장에 대한유도회 회장님과 소속팀인 한국마사회 회장님이 계셨다. 이분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시간을 흘려보냈다. 인사를 다 마쳤을 때에는 매트에 오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태극기를 손에 쥐고 시상식에 오를 수는 없었다.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하는데 옆에 두기도 애매했다. 그래서 태극기를 뒤로 내려 한번 묶었다. 그렇게 태극기 망토가 됐다.

## 전기영의 라이벌

전기영은 김병주가 은퇴한 이후 체급을 올리기 전까지 78kg 급에서 운동식과 경쟁했다. 전기영과 운동식은 고교 때부터 맞수였다. 이 때문에 유도팬은 전기영과 운동식을 라이벌 관계로 봤다.

운동식은 지난 3 월 SPORTS2.0 과 인터뷰에서 “유도 인생의 최대 라이벌은 전기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영이 생각하는 라이벌은 운동식이 아니다. 조민선(36)이다. 전기영은 남자 78kg 급과 86kg 급에서 세계 정상이었고 조민선은 여자 66kg 급에서 상대가 없었다.

조민선은 1993 년과 1995 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66kg 급에서 우승한 데 이어 애틀랜타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사람은 같은 시기에 활약한 한국유도의 간판 선수다. 1997 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명의 세계선수권대회 3 연속 우승자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전기영은 마르코 스피트카(37,독일)를 꺾고 세계 정상을 지켰지만 조민선은 동메달에 그쳤다.

### 3 연속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을 이뤘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하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땀지만 또 한번 우승을 하고 싶었다. 한국 선수 가운데 종목을 불문하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 연속 우승을 이룬 선수가 없었기에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그 꿈을 이뤘다.

### 그때 조민선도 대회 3 연속 우승에 도전했다.

나와 조민선은 라이벌이었다. 보이지 않는 경쟁이었다. 1993 년과 1995 년 세계선수권대회, 애틀랜타올림픽에서 함께 정상에 올랐다. 누가 더 유도를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우승을 하느냐였다.

세 번 모두 조민선과 같은 날 경기를 했고 같이 메달을 땀다. 함께 도전했지만 나만 성공했다.

## 베이징올림픽 그리고 그 후

오랫동안 세계 정상에 머물 것 같았던 전기영은 1999 년 은퇴했다. 26 살로 한창 떨

나이였다. 그러나 전기영은 선수가 아닌 지도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었다.

전기영은 그해 일본 다이고로에 입단해 플레이코치로 활동했다. 그리고 1년 뒤 유도대표팀 트레이너로 2004년 아테네올림픽을 치렀고 남자대표팀 코치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다녀왔다.

2005년 1월 용인대 교수로 임용된 전기영은 후진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비용인대 출신이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가 된 건 개교 이래 처음이었다. 교수와 지도자를 꿈꾸는 전기영의 또 다른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 젊은 나이에 현역에서 물러났다.

무릎이 좋지 않았다. 애틀랜타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을 하다 무릎을 다쳤는데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부상이 심각해 엎어치기를 할 수 없었다. 도핑의 위험이 있어 무릎에 봉대를 감고 경기에 나서야 했다. 잘 버텨 냈지만 한계가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보니 얼마 안 남았던 인대마저 모두 끊어졌다. 수술대에 오르면 선수 생활을 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난 박사 과정을 밟고 싶었다. 선수 생활에 대한 미련도 없었다. 그 정도면 만족스러웠다.

지인의 소개로 다이고로에 2년 계약으로 입단했다. 단체전만 뛰었을 뿐 선수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했다.

### 이후 트레이너를 거쳐 코치로 베이징올림픽을 치렀다.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선수였을 때에는 자신의 컨디션만 챙기면 되지만 코치는 그렇지 않다. 모든 선수의 몸 관리는 물론 전 체급의 상대 선수들에 대한 분석도 해야 한다. 할 일이 많다. 태릉선수촌에서 먹고 자며 선수들과 함께 했다.

### 남자대표팀은 베이징 대회에서 금 1, 은 2 개를 수확했다. 만족하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는 결과로 평가를 받는다. 크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금 1, 은 1 개였던 아테네 대회보다 성적이 좋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금메달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수없이 빠졌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 대머리가 될까 걱정됐다.

그런데 (최)민호(28, 한국마사회)가 대회 첫날 금메달을 딴 이후 거짓말처럼 머리카락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 2005년부터 용인대 유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세계선수권자이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무조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부를 해 박사 학위를 따야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한다. 대표팀 트레이너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용인대 교수직은 용인대 총장인 대한유도회 김정행 회장님이 날 잘 봐 주신 덕분인 것 같다.

### 유도인으로서 꿈은 무엇인가.

유도는 어려운 운동이지만 많은 이들이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 아직은 교수보다 선수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색다른 수업을 하고 싶다

### 2008 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대표선수들에게

#### 60kg 급 | 최민호 | 금메달

“(최)민호야, 너 세계 최고의 선수다. 금메달을 딸 실력을 충분히 갖췄어. 이번 대회 금메달로 4년 전 동메달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 다행이다. 정상에 있을 때가 더욱 중요하다. 열심히 훈련해 꾸준히 성적을 낼 수 있어야 해.”

#### 66kg 급 | 김주진 | 32 강

“난 네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줄 알았다. 하필 32강전에서 만난 상대가 2005년과 2007년 세계선수권자인 조아우 데를리(브라질)였니. 그렇지만 강자를 모두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진정한 승자다. 너 이제 22살이다. 많은 기회가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 73kg 급 | 왕기춘 | 은메달

“네가 은메달에 머문 뒤 울먹거리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다. 결승에서 늑골 부상으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지. 또 이원희를 누르고 국가대표로 뽑혔지만 금메달을 따지 못해 많은 팬의 비난을 받았지. 그 같은 스트레스를 잘 알고 있다. 너 마치 죄인처럼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은메달도 잘 한 거다.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라.”

#### 81kg 급 | 김재범 | 은메달

“꿈에 그리던 올림픽 출전에 이어 메달까지 땀구나. 하지만 은메달에 안주해선 안 된다. 여러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둬 유도팬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선수가 되기 바란다. 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더 클 수 있을 거야. 은퇴하는 날까지 몸 관리 잘하고 열심히 훈련해라.”

#### 90kg 급 | 최선호 | 32 강

“(최)선호야, 네 나이가 31 살이다. 내년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어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을지도 모르겠다. 체력적으로 힘들겠지만 풍부한 경험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뒤늦게 빛을 본 대기만성형이니 현재가 네 전성기일지도 모르겠다”

### 100kg 급 | 장성호 | 패자부활 준결승

“시드니 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했지만 아테네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확했고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노렸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다. 3 회 연속 올림픽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다. 이번 대회를 끝으로 대표팀 트레이너로 선임됐지.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되면 무엇보다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늘 선수를 위한다는 생각을 가져라.”

### 100kg 이상급 | 김성범 | 32 강

“체급을 낮춰 내년 세계선수권대회에 도전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현재 네 체중이 115kg 인데 15kg 을 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무리해서 운동을 하면 부상 위험만 커진다. 체중 감량에 지나치게 엄매이면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편안하게 운동을 하면 다 잘 될 거야.”

SPORTS2.0 제 122 호(발행일 9 월 22 일) 기사

Source: [http://www.sports2.co.kr/people/people\\_view.asp?AID=188092](http://www.sports2.co.kr/people/people_view.asp?AID=188092)